

재벌들은 수산물 수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의 유명한 대기업들은 외국산 왕새우를 경쟁적으로 마구 들여와, 우리 어민들이 잡은 새우는 혈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우리 어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재벌들과, 외국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입개방에 앞장서는 현 정권이 존재하는 한 200만 어민의 앞날은 어둡기만

합니다. 게다가 우르
과이라운드 협상까지
타결되면 더 이상 우
리 어민과 어촌은 살
아남을 길이 없습니
다.

정부의 어민에 대
한 무관심은 수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조
성에서도 아주 잘 나
타납니다. 수산진흥
기금은 현재 고작 52
억원 밖에 되지 않
는데, 80년 이후 지
금까지 정부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은
대책없이 죽어가는
바다만 바라볼 뿐입
니다.

수서비리등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현정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촌과 어민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 수산물 출고에 어민들의 자율권을 보장하며, 수협이 진정으로 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수협법을 대폭 개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 선원의 인력보충과 조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금융지원정책을 펴야합니다.

셋째 : 낡고 오래된 선박을 대체시키며, 해난사고 구조장비를 현대화 해야 합니다.

넷째 : 어민의 뜻과 다른 개발정책은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의 건설, 정기적으로 바다청소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 어민이 아닌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양식장은 모두 어민에게 되돌려야 합니다.

여섯째 : 무분별한 수산물 수입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민주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5 층무B/D 3F
전화 : 785-0091~5 F A X : 782-9815

민주선전91-A-5



씩는 바다, 죽어가는 어촌 우리 어민 어떻게 살아가나

- 애써 잡은 생선은 제값도 받지 못한 채 중매상의 배만 불러 줄 뿐입니다.
- 낡은 어선, 무리한 조업 속에서 우리 2백만 어민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 씹어가는 바다, 재벌의 횡포는 우리 어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 내고 있습니다.
- 무분별한 수산물 수입은 이제 2백만 어민들을 바다에서까지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45695

군사정권은 어민을 돌보지 않습니다.

“수산물 생산량 세계 8위, 수산물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5천불.” 참으로 그럴싸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민은 실제로 하루하루 어려운 생활 속에서 시달려야만 하고, 그나마 내 배가 없이 남의 배를 타야만 합니다. 때로는 해양경찰대에게 그물을 빼앗기기도 하고, 어업지도선의 횡포에 울분을 삼켜야만 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바다는 공장의 폐수와 기름찌꺼기로 더럽혀지고, 양식장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산물을 수입개방하고, 수산업 재벌에게는 여러가지 특혜까지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어민들은 이제 설자리가 없습니다.

총칼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은 본래 그런 것입니다. 정통성이 없고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압력을 그대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수입개방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중매상만 배불리는 수산 유통구조입니다.

현재 우리 어민들이 잡은 고기는 모두 각 지구별 수협위원장과 부산공동어시장에서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파도와 싸우며 직접 고기를 잡은 어민들이 고기값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중매인들은 고기값까지 담합하고 있어, 그 피해는 우리 어민과 소비자만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구조는, 어민들에게 생선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에게 비싼 생선을 먹게하는 아주 잘못된 구조인 것입니다.



1년에 200여 어민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기를 잡다가 해난사고를 당하는 배가 1년에 무려 290여 척에 달합니다. 또 이러한 사고로 인해 우리 어민이 1년에 200여 명씩이나 바다에서 죽어 갑니다. 그것은 배가 만들어진 지 무려 15년이상 되어 낡은 대로 낡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만 여척에 이르는 낡은 나무배들이 대부분 5톤 미만의 작은 배들이어서 해난에는 그대로 사고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리한 항해와 조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임금지불형태 때문에 생활의 안정은 고사하고 생명에까지 항상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만 ‘어업정책’을 침이 튀도록 말할 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장 폐수 기름찌꺼기가 양식장을 망칩니다.

실새없이 쏟아내고 있는 공장 폐수, 유조선에서 토해내는 병커C유는 우리 200만 어민의 바다를 하루가 다르게 더럽히고 있습니다. 지난 90년 7월 12일 경인호에서 토해낸 병커C유, 그리고 7월 15일 작약도앞에서 호프호가 쏟아부은 자동차 3만대분에 달하는 병커C유는 서해·남해 연안의 양식장을 순식간에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허영계 배를 내밀고 떠오른 고기떼, 흉칙하게 썩

어버린 양식장을 바라보며 우리 어민은 며칠동안 통곡을 해야만 했습니다. 몇년동안 피땀흘려 기른 김·굴·조개·바지락이 하루아침에 썩어버려, 어떤이는 실성하여 기름찌꺼기로 뒤덮인 바닷가를 하염없이 헤매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1백만 양식업 어민에게는 공포의 바다,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저 재벌의 기름유출이나 공장폐수에 안이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